

# 輸銀 지점폐쇄 논란... 방만경영 탈피 vs 지역경제 타격

(창원·구미·여수·원주)

폐쇄계획 4개 지점 존폐여부 재검토 거래중단 기업 120곳... 피해 클 것 혁신안 이행 약속에 고심 이어질 듯

“비오는 날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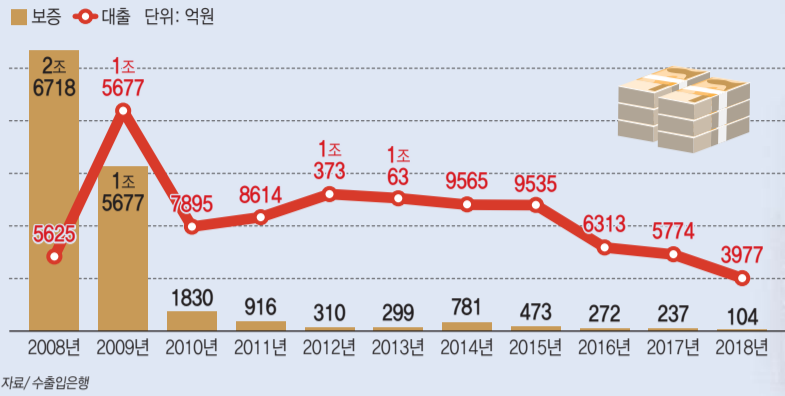
늘 기업고객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수출입은행의 고심이 깊어졌다. 막대한 적자에 따른 부실 경영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지점을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타격을 무시하고 비오는 날 우산을 뺐는다는 눈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수출입은행은 폐쇄를 계획한 4개 지점 및 출장소를 재검토 하고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 경남 창원지점을 비롯해 구미, 여수, 원주 출장소 4곳에 대한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수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점 및 출장소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은은 여신규모, 고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여신지원실적



자료/수출입은행

객·기업 수, 인근지점 거리 등을 토대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14개 지점과 출장소 중 30%를 축소하고, 관리자금 인력 10%를 줄일 계획이었다.

수은 관계자는 “창원지점과 구미 여수 원주출장소 폐쇄는 혁신안에 제시한 여신규모와 고객 기업수 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출장소의 경우 지점이 생긴 이후 마련된 경우가 많아 여신 규모나 고객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여수출장소의 경우 광주지점과 창원지점에 있던 여신 중 여수출장소와 가까운 여신을

이관한 부분이 많았다”며 “지점과 출장소 모두 여신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기재부와 합의에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은의 중소기업대출보증 지원현황을 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이 부진하면서 최근 10년간 여신지원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창원지점의 여신지원규모는 6011억원(대출 5774억원, 보증 237억원)으로 2018년(3조2343억원)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로 지점폐쇄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지역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은 와중에 지방 지점 폐쇄는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점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수은이 4곳의 지점 폐쇄로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는 10억원 미만이지만 해당지역 거래 중단 기업이 120곳에 달해 기업피해를 클 것이라 지적이다.

폐쇄지점 4곳 모두 혁신안 기준으로 보면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금융기

관의 존재목적 자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까지 내려가 제조업을 독려하고 있고, 창원 같은 곳은 수은의 역할이 집중돼야 하는 곳”이라며 “(지점 폐쇄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는 격”이라고 말했다.

수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주출장소만 보더라도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다”며 “여신규모나 고객 기업수가 적다고 무작정 폐쇄하는 것은 과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 이행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상 국민과 약속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수은 관계자는 “혁신안 이행은 이미 기재부와 합의하고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기도 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점 및 출장소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재고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출산율 0.98명... 대학 선제적 구조조정 당면

>> 1면 '저출산의 그늘...'서 계속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공백 우려 교원 자연감소 고려 등 대응책 필요

다만, 급속하게 신규 교원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학 교수사회 주력인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교원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올해 시

행되는 강사법과 맞물려 교원의 고용 유연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현재 50대 중후반 이후인 베이비부머 세대 교수들이 빠져나가면 교원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어, 교원의 자연감소분도 고려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법으로 대학들도 교원을 더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맞물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

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향후 50년간 10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2017년 출산율 1.05명을 토대로 한 것으로 2018년 출산율 0.98명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으로 추

산, 처음으로 연간 30만명 아래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Demographic Onus)’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세대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변화는 실제 우리 삶 속 환경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지역 웨딩홀 수는 2016년 152개에서 2017년

100개로 34%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2012년 900곳에서 2017년 740곳으로 18% 줄었다. 반면 장례식장은 2000년 460곳에서 2015년 1037곳으로, 요양병원도 같은 기간 740곳에서 1512곳으로 각각 2배 이상씩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가 복지 수요도 증가해 재정 압박과 세수 부담도 증가 추세다. 2009년 80조4000억원이던 정부 복지예산은 2016년 122조9000억원으로 증가, 전체 정부 예산 비중이 31.8%로 커졌다. /한용수 기자 hys@

## 2019년도 인문100년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인문학분야 및 예술·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안내합니다.**

### 선발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또는 예술·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 인문100년장학금: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전공탐색 유형(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 유형(2년 지원)] 재학생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2년 지원)

### 선발 제외대상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019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제한대학
- 계약학과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우수장학금 기수혜(선발)자 등
- ※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총 640명 내의

- 인문100년장학금: 500명 내의(인문학 및 기초학문 전공자 위주)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40명 내의(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 계열)

###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기준**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선발하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  
\* 소득구간별 가점 차등 부여(19년 1학기 소득구간 확인 불가자는 10구간으로 간주)

**선발절차**  
대학 참여 신청 및 학생 사전신청 접수(3-4월) ▶ 대학별 장학생배정인원 안내(5월) ▶ 대학별 자체 선발 및 장학생 추천(5-6월) ▶ 학생(추천대상자) 최종 신청(필수서류 제출)(6월) ▶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6-7월)

### 지원내용

**지원기간**

- 인문100년장학금
  - 전공탐색유형: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지원내용**

- 등록금 및 생활비
  - 인문100년장학금: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학기당)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 200만원(학기당) 추가 지원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록금 전액, 생활비 150만원(선발연도 1회)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 180만원(학기당) 추가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학생사전신청**

- 신청기간: 2019.4.3.(수) 09:00 ~ 4.16.(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개별 직접 본인 신청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인문100년장학금/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신청하기
- 제출서류: 재단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대학별 자체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으로 제출
- ※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신규 장학생 선발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에 한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공통서류(1. 학업계획서, 2. 전인적(인재성장계획서) 제출

**대학참여신청**

- 신청기간: 2019.3.15.(금) ~ 4.17.(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관리자포털)을 통한 온라인 클릭 참여 신청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세부 일정 및 방법은 각 대학으로 별도 안내

**문의처**

홈페이지: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 1599-229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